

Turning Red: Will It Be Okay If I'm Not Good Enough For My Parents?

CONNIE LEUNG NELSON | APRIL 3, 2022

Parents, be advised that there are spoilers ahead! Also, before you watch with your kids, please be aware the film gently addresses the onset of puberty.

부모님들, 스포일러가 있다는 점 주의해 주세요! 또한 자녀들과 함께 보기 전에 영화가 조심스레 사춘기의 시작을 다루고 있다는 점 또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Turning Red is a coming of age movie centered on a 13-year-old Chinese Canadian girl growing up in the early 2000s. Featuring fantastic animation and plenty of nostalgic throwbacks to that golden age, the film does a wonderful job dealing gently with many “emerging teen” issues. But those are just secondary themes. *Turning Red* is primarily a story about the generational conflict between the parents and children of immigrant families.

메이의 새빨간 비밀은 2000년 초반의 13살 중국계 캐나다인 소녀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환상적인 애니메이션과 황금시대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회상 장면이 많이 등장하는 이 영화는 “떠오르는 십대”의 많은 문제들을 조심스럽게 다루는 것을 훌륭히 해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부차적인 주제에 불과합니다. 메이의 새빨간 비밀은 근본적으로 이민자 가족에서 볼 수 있는 부모와 자녀들 사이의 세대 간 갈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The main character is Meilin Lee (Mei), who is confident, a bit goofy, and loveable. Her friends adore her and label her a “goody goody,” which is a testament to the parenting heroics of Ming, her mother. Mei has a deep sense of duty towards her mom, and it is not surprising given how Ming seems to balance high expectations (Academics! Sports! Music! Chores!) with unwavering love and support. This mother and daughter have an amazing relationship.

주인공, 메이린 리 (메이)는 자신감 넘치고 약간은 엉뚱하며 사랑스럽습니다. 메이의 친구들은 메이를 좋아하고 “goody goody”라는 별명을 붙였는데 이는 메이의 어머니 밍의 육아 영웅적인 모습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메이는 어머니에게 깊은 의무감을 갖고 있었고, 밍이 (학업! 운동! 음악! 집안일!)등에 대해 높은 기대치와 흔들리지 않는 사랑과 지원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고 있는지를 보면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이 어머니와 딸은 놀라운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But times are changing. A teenager now, Mei is facing everything that puberty brings. She's interested in boys and goofing off with her besties, and the most important thing in the world to her is the boy band 4Town. None of these things bear the coveted stamp of mom's approval. Though they are still close, Mei realizes that her mom's dreams, goals, and wishes are no longer one and the same as her own. To make matters worse, this coming-of-age process is thrown into warp speed by the emergence of a magical hereditary trait: when she is triggered by extreme emotions, Mei transforms into a big, hairy, smelly, (but very cute) red panda.

하지만 시간은 흐릅니다. 이제 사춘기에 접어든 메이는 사춘기가 주는 모든 문제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남자들에게 관심이 생기고 절친들과 장난을 치며,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이 밴드인 4Town이 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어떤 것도 엄마의 승인이라는 도장을 탐내지 않습니다. 엄마와 여전히 가까운 관계지만 메이는 엄마의 꿈과 목표, 그리고 소원이 더 이상 자신의 것과 같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렇게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은 마법의 유전적 특성의 출현으로 가속도가 붙게 됩니다. 메이가 극단적인 감정에 자극이 되면 메이는 크고, 털이 많고, 냄새가 나는 (하지만 매우 귀여운) 레서 판다로 변신합니다.

What do we make of this **panda power**? When a familiar trope like animal transformation appears, it's tempting to try to assign a familiar narrative to help make sense of the story. However, imposed narratives can lead to false interpretations. If we allow the story to remain in its cultural context, the way it is meant to be understood, we can get a clearer picture of the story means.

이 판다 파워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동물 변신과 같은 익숙한 비유가 등장하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 친숙한 내러티브를 주려는 유혹이 생깁니다. 하지만 강요된 이야기는 잘못된 해석을 부를 수 있습니다.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즉 이해하고자 하는 방식으로 이야기의 흐름을 둔다면 이야기가 의미하는 바를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All of the women in Mei's family share this trait. Ming explains the origins of their panda power to Mei in this way:

메이 가족의 모든 여성은 이 특성을 공유합니다. 밉은 메이에게 판다 파워의 기원을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The gods gave her (Lee ancestor Sun Yee) the ability to harness her emotions to transform into a powerful, mystical beast. She was able to fend off bandits, protect her village, and save her family from ruin. Sun Yee passed this gift to her daughters when

they came of age, and they to their daughters. But over time, our family chose to come to a new world. And what was a blessing becamean inconvenience.”

“신들은 (이 씨 조상 이 선)에게 그녀의 감정을 힘으로 강력하고 신비로운 짐승으로 변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다. 그녀는 도둑을 물리치고 마을을 보호하고 가족들을 파멸로부터 구할 수 있었지. 이 선은 이 선물을 딸들이 성년의 나이가 되었을 때 전달했고, 그 딸들은 그들의 딸들에게 물려주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우리 가족은 새로운 세계를 선택하였고 이 축복은.... 불편한 게 되었다.”

The panda is the anthropomorphic version of the unacceptable, frowned-upon, shameful, and embarrassing inner beast that many Chinese believe they have within themselves: their raw, unfiltered feelings and emotions.

판다는 많은 중국인들이 자신 안에 가지고 있다고 믿는 용납할 수 없고, 눈살을 찌푸리게 하며, 수치스럽고, 창피한 내면의 짐승, 즉 원시적이고 걸러지지 않은 느낌과 감정의 의인화된 버전입니다.

Chinese people are generally not a “feel my feelings really deeply” people. Voicing displeasure is seen as oversensitivity, disrespect, or ungratefulness. Hurt feelings are something to be ashamed of, to hide and sweep under the rug. Contrary to Western culture, feelings are not so much perceived as *part* of someone; they’re seen as an unwelcome *intrusion* on that person.

중국인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깊게 느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불만을 표출하는 것을 과민하고, 무례하거나, 배은망덕하다고 간주합니다. 상처받은 감정은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라 깔개 밑에 쓸어서 숨겨버릴 일입니다. 서구 문화와 다르게 감정은 누군가의 한 부분으로 인식되지 않으며 환영받지 못한 무단 침입으로 간주합니다.

This aversion to emotions is part of the collective mindset of traditional Chinese culture. If the family is a unit, in order for the unit to operate smoothly, the individuals must be largely homogenous. In a group oriented culture, the good and thriving of the group is more important than that of the individual. Anything that diverges from the group identity threatens the identity and stability of the group as a whole.

감정에 대한 이런 혐오감은 중국 전통문화의 집단적 사고방식의 일부입니다. 가족이 하나의 단위라면 이 단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개개인이 동질적이어야 합니다. 집단 중심 문화에서는 개인의 이익보다는 집단의 이익과 번영이 더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그룹의 정체성에서 벗어나는 것은 그룹의 정체성과 안정성을 위협합니다.

But if someone is upset, that makes them different from the rest. To the Chinese, love = proximity, so separation = no love. And if Chinese parents know anything, it is that they really, really love their children, with the kind of love that makes unimaginable sacrifices. Separation is unthinkable. Instead, parents would choose to be resolutely blind to any indication that their child is separating or different from them — even if the child is the one insisting on this.

하지만 누군가 화가 나면, 그 감정이 그 사람을 다른 이들로부터 구별하게 합니다. 중국인은 사랑이 친밀감이고 분리는 사랑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중국인 부모가 아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희생을 치를 만큼의 사함으로 자녀를 온 맘을 다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분리란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대신 부모는 그들의 자녀가 원하고 있더라도 부모로부터 떠나려고 하거나 다르다는 것을 전혀 보지 않는 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Generational conflict rests here, in the gap between what parents need from their child and what the child needs from their parents. In order to keep the child close, the parent wants to dismiss their child's feelings. The parent will tell themselves, "Those bad feelings that my child is trying to share with me, they are not a part of her." Out loud, the parent might say, "This is not you, my child, speaking. This is your oversensitivity." The child hears this, and feels unheard and unloved, because they grew up in a culture where "being heard = being loved."

세대 간 갈등이 바로 여기, 부모가 자녀로부터 필요한 것과 자녀가 부모로부터 필요한 것과의 사이의 차이에 있습니다. 자녀를 가까이 두기 위해 부모는 자녀의 감정을 별것 아닌 것으로 하길 원합니다. 부모는 스스로에게, "내 아이가 나와 나누려고 하는 나쁜 감정은 아이의 일부가 아니야."라고 말합니다. 부모는 큰 소리로 "지금 말하는 건 네가 아니고 너의 과민성일 뿐이야."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들어주는 것은 사랑받는 것이라는 문화에서 자란 자녀는 이 말을 듣고 부모가 귀 기울여 주지도 않고 사랑받고 있지도 않다고 느낍니다.

The trauma happens when neither parent nor child get what they need. The child distances themselves because they feel unheard and therefore unloved, and the parent loses the proximity that they need.

트라우마는 부모나 자녀 그 누구도 필요한 것을 얻지 못할 때 발생합니다. 자녀는 들어주지도 않고 사랑받고 있지도 않다고 느끼기 때문에 거리를 두게 되고, 부모는 아이에게 필요한 친밀감을 잃게 됩니다.

Director Domee Shi masterfully illustrates these nuances in the Lee family. Ming’s love for Mei is unwavering and unquestionable. Yet she refuses to see that Mei is growing up and forming her own hopes and dreams (and even liking boys, yuck!). When she finds Mei’s crush-induced drawings of Devon, her mom-blinders are on full force as she storms the convenience store to chew him out for corrupting her daughter. Mei is humiliated, but instead of expressing her feelings to her parents, she screams into her pillow in her room.

Domee Shi 감독은 이 씨 가족의 이러한 뉘앙스를 훌륭하게 묘사합니다. 메이를 향한 밍의 사랑은 확고하고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밍은 메이가 성장하며 자신만의 희망과 꿈(심지어 남자를 좋아한다는 것, 웁!)을 꾸고 있다는 것을 보는 것을 거부합니다. 밍이 데본을 짝사랑하며 그린 그림을 본 밍의 엄마-눈가리개는 딸을 타락시킨 데본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편의점으로 향하며 절정에 이릅니다. 메이는 수치심을 느끼지만, 부모에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방 안에서 베개에 대로 소리를 지를 뿐입니다.

Likewise, after the disastrous Panda Party, Ming accuses Mei’s friends of scheming to corrupt her daughter. Rather than acknowledge either Mei’s part in the mess or her feelings, Ming stubbornly chooses to believe that Mei is still the same daughter that she wants her to be. Again, Mei remains silent and won’t tell her mom the true story or how she really feels.

마찬가지로, 참담한 판다 파티 이후 밍은 메이의 친구들이 자기 딸을 타락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고 비난합니다. 혼란에 가담했던 메이의 역할이나 메이의 감정을 알아주지 않고, 밍은 고집스럽게 메이가 여전히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는 딸이라고 믿는 것을 선택합니다. 또다시, 메이는 침묵하고 엄마에게 진심이나 진짜로 느끼는 감정에 대해 말하지 않게 됩니다.

Then there is Ming’s personal story – we find out that Ming and her mom had a falling out of epic proportions many years ago, over Jin (Mei’s dad and Ming’s husband). Emotions were high, pandas were large, and Ming and her mother still have a strained relationship today. However, Grandma’s interpretation of the past is not that she and Ming had a conflict over Ming’s independence in choosing a husband. Grandma remembers that her harmonious relationship with her “good daughter” was torn asunder by the intrusion of Ming’s unwelcome panda.

그리고 이제 밍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밍과 그녀의 엄마가 몇 년 전, (메이의 아버지이자 밍의 남편) 진을 두고 큰 싸움을 벌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감정은 고조되어 판다는 커졌고 밍과 그녀의 엄마는 오늘날까지 멀어진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대한 할머니의 이해는 남편을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서 밍이 독립적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갈등이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할머니는 착한 딸과 조화로운 관계가 밍의 달갑지 않은 판다의 침입으로 깨졌다고 생각합니다.

Everyone's suppressed feelings reach a boiling point when, to all her family's (and even her own) surprise, Mei decides to not go through with the panda-binding ritual, and the ceremony comes to a screeching halt. Declaring that she's "keeping the panda", she refuses to conceal her defiance and rushes off in her panda form to get to the 4Town concert. Ming, Jin, grandma and all the aunties are left floored in utter disbelief. Ming is finally forced to contend with the separation that she has been working so hard to deny.

모든 사람의 억눌린 감정은 메이가 판다를 묶는 의식을 하지 않기로 하고 비명을 지르며 의식이 중단되면서 폭발 지점에 이르게 됩니다. 메이가 "판다를 계속 가질 거야"라고 선언하며 반항심을 숨기지 않고 판다의 모습으로 4Town 콘서트로 향합니다. 밍과 진과 할머니와 모든 이모는 믿을 수 없는 상태로 방치됩니다. 마침내 밍은 그 동안 그토록 부정하려고 노력해 온 이별에 대해 결국 다투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Ming and Mei's confrontation takes the form of battling pandas – and as the dam of unvoiced feelings breaks open, as Ming and Mei yell and roar at each other to make themselves heard, we see a visible metaphor for these family conflicts that seem larger than life. Finally, the dust settles and the film moves to the mystical realm, where Ming and Mei meet in human form after their fight. Ming has been painfully forced to acknowledge that Mei is different from her, different from how she used to be, and that their relationship cannot be the same... and now comes the reckoning.

밍과 메이의 대결은 판다가 싸우는 모습을 취합니다. 소리 없던 감정의 댐이 무너지고 밍과 메이가 서로 하고자 하는 말을 듣게 하기 위해 소리를 지르고 포효하면서 삶보다 크게 보이는 가족 간의 갈등에 대한 가시적인 은유를 볼 수 있습니다. 마침내 먼지가 가라앉고 영화는 신비로운 세계로 이동합니다. 그곳에서 밍과 메이는 싸움 후 인간의 모습으로 만나게 됩니다. 밍은 메이가 자신과 다르다는 사실, 예전과 다르다는 사람과 그들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도록 고통스럽게 강요받게 되고 이제는 깨닫게 됩니다.

The tension does not lie in whether it is right or wrong for Mei to keep her panda – Ming knows that Mei will choose to keep her panda. The great tension, for Ming, Mei, and we first and second generation Chinese, is in these unspoken questions we have for our parents:

긴장감은 메이가 판다를 지키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밍은 메이가 판다를 선택할 것을 알았습니다. 밍과 메이, 우리 중국인 1세와 2세에게 가장 큰 긴장감은 우리가 우리 부모에게 갖고 있는 무언의 질문에 있습니다.

I am different from you. I have my own identity, my own thoughts and feelings. I have dreams for myself that may not be your dreams for me. I have failed to be what you want me to be. I couldn't meet your expectations. I am not good enough to validate what you have done for me.

나는 당신과 달라요. 나만의 정체성이 있고, 나만의 생각과 감정이 있어요. 나는 나를 위한 당신의 꿈이 아닐 수도 있는 나만의 꿈이 있어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될 수 없어요. 당신의 기대치에 미칠 수 없고 나를 위해 해준 일을 입증할 만큼 훌륭하지도 않아요.

But... is that ok?

그래도... 괜찮나요?

Can you still be proud of me? Will you acknowledge my efforts?

여전히 나를 자랑스러워 해주실 수 있나요? 내 노력을 인정해줄 수 있나요?

Will you still love and support me?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지지해줄 수 있나요?

For many first and second generation children of immigrant families, we hang in the balance of how our parents answer these questions. While the answers may be obvious, even unnecessary for some, there are those of us who grew up unable to answer them. We truly don't know. And perhaps it's that uncertainty, of whether we can count on that security, that love, that drives us to try harder still.

이민 가정의 많은 1세와 2세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가 이런 질문에 어떤 대답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균형에 달려있습니다. 대답은 분명할 수도 있고, 불필요하게 느끼는 사람들도 있으며, 대답을 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 안전, 그 사랑에 의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우리로 하여금 더 노력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How then, is the great tension resolved? How are those all-important questions of belonging, of finding approval, of having affirmation, answered for Mei?

그렇다면 이 큰 긴장감은 어떻게 해결될까요? 소속감이나 승인을 받는 것, 혹은 확인을 받는 것과 같은 질문들에 대해 메이에게 답해줄 수 있을까요?

Domee Shi calls this film a “love letter.” Yes, I think so, because love letters wax poetic on the good and the beautiful and tend to omit the bad. In this movie, both Ming and Mei get to win in ways that many of us never got to win. Many of us are still wondering if the lengths we are going to are being seen, whether we’re good enough, whether our parents would approve of us, whether they would be proud. We wonder if we can be free to be different from their dreams for us, and yet turn around and still have their approval and feel their love.

Domee Shi 감독은 이 영화를 “러브레터”라고 부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연애편지는 좋고 아름다운 것은 시적으로 표현하고 나쁜 부분은 생략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화에서 밍과 메이는 우리 대부분이 절대 이기지 못하는 방식으로 승리를 쟁취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앞으로 보게 될 길이나, 우리가 충분히 괜찮은지, 부모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거나 자랑스러워할지 아직도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의 꿈과 다르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으면서도 여전히 방향을 바꾸어 부모의 승인과 그들의 사랑을 느낄 수 있을지 궁금해합니다.

I may be someone who hangs in the balance of how my parents answer my all-important questions. To be sure, my family is a gift from God, and it’s a testament to his design for families and their closeness that I will always, to some degree, crave my parents’ approval.

제가 바로 나의 중요한 질문에 대해 어떻게 부모님이 대답하실지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확실한 건, 가족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항상 어느 정도 부모님의 승인을 갈망할 것이라는 것은 가족과 그들의 친밀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But the older I get, the more I hang on to this truth: for those of us in Christ, all that we need, we already have. I’m not good enough, nor will I ever be. But *Christ is*, and his perfection is what I can claim as my own, not because of what I’ve done but because of his death on the cross. I hold securely my Father’s love, a love that is brimming with assurance, a love that is absolutely firm, a love that grips me rather than leaving me wondering and guessing. He is strong enough to handle my feelings. I cannot offend him by being me. Because he already knows all of me, he truly sees me. I can never

“pay him back” for his kindness, so I aim to please him not because I fear he will withdraw his love, but because I want to bless his delight in me. And yes, he does delight in me.

저는 나이가 들수록 이 진리에 더 매달리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충분하지 않으며 절대 충분해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충분하시며 그의 완전함은 내가 행한 것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사랑, 확신으로 가득 차고 절대적으로 확고하며, 나로 하여금 궁금하게 하고 추측하게 하지 않고 강하게 붙드는 그 사랑을 붙잡습니다. 그는 나의 감정을 다루시기에 충분히 강하시며 나 자신의 모습으로 화나게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나에 대해 모든 것을 아시고 진실로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의 친절을 되갚을 수도 없기에 그 사랑을 철회할까 봐 두려워서가 아니라, 나를 향한 그의 기쁨을 축복하길 원하기에 그를 기쁘시게 하길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나를 정말 기뻐하십니다.

Believer, he delights in you too.

신자 여러분, 그 분은 당신도 기뻐하십니다.

CONNIE LEUNG NELSON

Connie was born in Hong Kong and has lived in Alberta, Canada since she was 6 years old. She has served in youth ministry for over 10 years and is a leader in the college fellowship at her church in Edmonton. She also works with a **Guatemalan missions organization**. Connie enjoys warm weather, her husband's cooking, and chatting with friends over a hot cup of tea. She and her husband Chris have 1 teenager, 2 kids and a ridiculous number of houseplants.

CONNIE LEUNG NELSON

Connie는 홍콩에서 태어나 6살부터 캐나다의 알버타에서 살았습니다. 10년 동안 청소년 사역을 했고 현재 Edmonton의 교회에서 대학부의 리더로 섬기고 있습니다. Connie는 과테말라 선교 단체와 동역하고 있으며 따뜻한 날씨, 남편의 요리와 차를 마시며 친구들과 담소 나누는 것을 즐깁니다. Connie와 남편, Chris, 는 엄청난 양의 식물을 키우며 사춘기 자녀 1명과 2명의 어린 아이를 함께 키우고 있습니다.